文明알레르기

잃어버린 인공빛깔 무지개찾아 아름다운情感느끼는그純粹性 다시배워

健康칼럼

朴 聖 泰

<새서울醫院長·醫博>

비그치고 고요한밤 연연히잇는 처마끝낙수물의 情겨운音響 그리워

公害는文明의副産 生命保存위해 하나뿐인 地球지켜야

淸淨明水深山幽谷물줄기漢江에흘러와重金屬옷입은꾸정물되고

할머니情誠에 潤氣반지르하던 고명간장독은 플라스틱으로 둔갑

얼마전에 Y농원의 돼지분뇨오염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1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입을 더럽힌 팔당댐 상류 경안천의돼지분뇨 방류행위는 기업의 엄청난 暴擧요, 非理가 아니냐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만 더럽으면 백번을 헐지 모르나 公害는 현대문명이 낳은 대표적인 病理.

아무튼 이같은 각종公害때문에 서울은 악취속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은 거대한 시궁창이 된채 서울은 지상최대의 괴물로 등장하였다.

무악재나 금호동고개에 몇시간만 서성거리다가는 금방 그을음을 뒤집어쓴 굴뚝청소부처럼 되어 버린다. 전에는 사흘정도까지 입었던 흰와이샤쓰가 요사이는하루만 입어도 빨래통으로 직행한다.

우리나라 대기중에 배출되는오염물질은 65년을만 해도 5·2톤 정도이던것이 75년에는 평방키로미터당 19·5톤으로 껑충뛰었다. 이제 서울만해도 2백톤이상이나 된다고한다. 대도심지에는 눈병, 호흡기병, 신경질환, 폐암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미친듯 질주하는 차량들. 고막이 찢어질듯한 디젤엔진의 파열음. 석탄기관차의 연통처럼 뿜어대는 煤煙. 무서운 흰포속의 운전질서…. 아직도 말다리가 성한채 살아있는게 신기할정도이다.

자동차 9만대의 서울이 3백만대의 「로스엔젤레스」보다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한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알고보니 자동차기름에 불순물을섞고, 낡아빠진엔진을 그대로쓰고, 적재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워」를 보라! 정원보다 사람을 세배나 더태우니 그순간은 완전히 사람은 짐짝이 되는것이다. 수입을 위해서는 사람은 눈에 안보인다. 人間回復이란 말은 「쇠귀에 경읽기」다.

「슈팽글러」는 「인간은 도시를세운 동물」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동물이 흉내도 못내본 都市文明을 이룩한 인간은 위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만들은 도시문명의 副産物때문에 병들었다. 西歐文明은 도시문명의 견잡을수 없는 팽창과 不均衡때문에 몰락하지 않았는가. 어떤 史家는 「로마」제국쇠망의 원인은 「로마」시의 팽창에서 찾았다. 「로마」시와 지방과의 사이에 벌어진 錢富와 生活의 차이는 더욱 심하여 그것은 사회불안으로 확장되었기때문이다.

環境의 質을 높이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있다. 푸른숲, 맑은물은 정녕 없어질것인가? 俗離山문장대에서, 바위틈새로 팔팔 솟아지는 맑고 푸른 물줄기를 재고향을 떠나 한강까지 흘러내려와서는 水銀과 「카드뮴」의 맹독한 옷을 얻어입고 주증물로둔갑하고는 싱싱한 숨어를 끝사동이로 만들어버리는 毒水가 되어버린다.

서울열면 하늘이 뿌옇다. 고층빌딩때문에 通風조차 잘안된다. 이웃집 답녀며 아련히 들어오는 방망이소리를 뒤로한채 잠들던어린시절의 나날은 가을날 낙엽처럼 사라진 옛생활의 情이 되어버렸다. 어떤 어린이는 그것이 어느 제약회사의 동그런 선전탑인줄 혼동하고있다. 흉수처럼 쏟아지는 선전광고와 얄팍한 商魂의 노래들. 「텔리비젼」은 오늘날 단순한 바보상자가 아닌 必要惡이 되고있다. 어린이의 죽음을 부른 「6백만불의 사나이」는 아직도 인기속에 살아있다. 純粹의 汚染—무서운 일이다. 文明의 利己란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8월은 없어도 될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하였다. 세균에 오염된 썩어가는 고기들과 시든 파일을 저장해두는 도시의 냉장고들. 밤사이에 사람을 질식시킨 선풍기. 어린이의 生命을 무참히 앗아간 殺人식빵과 구더기 라면의 일류메이커들…. 良心의 空白지대에서 癌病棟의 독버섯은 여전 기세좋게 자라고있다. 한강물이 죽다니?! 옛날 우리 先祖들은 도읍을 정하는데 자연의조건과 風水地理를 얼마나 따지고 들은뒤에 선정하였는가 말이다.

한양의 젖줄인 한강의 죽음은 우리의 생존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수도물에서부터 어머니의 젖에까지 수은이 나오고있다. 幸州山城앞 하류에서는 물속의 중금속때문에 동이 굽은 기형어가 잡혔다. 우리는 수년전 水銀폐수에 의하여 뇌신경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였던 일본의 「미나마타病」을 기억하고 있다. 지구는 이제 自淨한계의 끝에서있다. 人口와 貧困과 公害의 세가지 큰 골치거리때문에 끙끙 앓고있다. 그중에서도 公害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땅과 물과 공기를 더럽히고 훼손한다.

公害는 文明의 본변이요, 企業의 犯罪이다. 공익을 뒷전으로여기는 기업의 이익추구는 강물을 죽이고 국민의 건강을 시들게한다. 거기에다 만일 公權力이 묵인하는날 공해는 극치에 달할것이다.

푸른강산은 고사하고 우리는후손에게 시들어버린 山河를 물려줄것인가? 大氣汚染의 무서움은역사가 증명하고있다. 1930년 「벨기에」 「뮤즈벨리」의 「스모그」때는 60여명의 사망자가생겼다. 1948년 10월 미국 「도노라」사건때는 20명사망에 6천명의피해자를 내었다. 또1952년 「런던」 「스모그」때는 천명에 달하였다.

이런사건도 있었다. 영국에서長壽者를 조사하였다. 1백52세의 「토마스·파」란 사람이 최고령자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그때서 그는 표창때문에 런던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런던에온지 얼마안되어 그 노인은 갑짜기 세상을 떠났다. 「웰컴하비」라는 저명한 학자가 그의시체를 해부했는데 다른데는 조금도 이상이없었다. 다만 그의 肺만이 오염되어 있었다. 결국 시골에서 맑은공기만 마시고 살던 그가 런던에 오자 더러운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그것이 영예로운 그長壽의 마지막을 장식한 死因이 되었다.

영국은 공해방지에 전력투구하였다. 그때서 50년대는 하루에셔츠 3장으로도 모자라던 런던시가지가 요즘은 셔츠한장으로 사흘을 입게되었다.

음식은 50일 안먹고도 단식으로 견딜수있다. 물은 5일간 안마시고도 살아갈수 있다. 그러나 대기는 5분간 안마시고 견딜수 있는 사람은없다. 안마시고 견딜수 없어버렸다. 어떤 어린이는 그것이 사망자가 4

생명은 非可逆的인것.

지난72년 「스톡홀름」에서는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명제를 내걸고 국제인간환경회의가열렸다. 그들은 人工의 조작때문에 계속 自然이 파괴된다면 종국은 지구와 더불어 인간이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강토는 단하나뿐이며 우리가 이를지키고 保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우리의 섭방을 모조리잃게되리라.

이제 자연을 保全하고 환경을 개선하자는 법령도 제정되었다.

법령이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다. 雪岳山의藥水까지 大腸菌이 우글거린다는연구조사자의 보고가 신문에 났었다. 말없는 자연은 울고 있다.

靑天白雲의 서울. 綠色으로 새로 단장한 말끔한 얼굴의 山影이 그립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아끼는 새마음의 자세가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실천이란 항상 어려운 것이지만.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사물은 잘 보이지 않는거야. 중요한 것은 눈으로 잘 보이지않아!」

(생텍쥐페리)

슬기로운 여우가 어린 王子에게 말하던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다시 찾도록 해야겠다. 자연에 대한 사랑, 그 마음씨가 중요하다. 공해속에 찌들은 하늘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도로 찾고 感動할줄 아는 그런 純粹를 다시 갖고 싶다.

東洋이란 자연의 빛과 西洋이란 문명의힘! 자연의 빛은 차차 문명의힘에 눌려 퇴색되어가고 고유한 아름다움조차 짓밟히고 있다. 도시민들은 황금빛 結實이 넘실거리는 가을들판—벼낟알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眞實을 잊고있다. 어린애들은 무지개를잃

격에다 육중한 기계를 얹고 文化라고 하는 파뿌리모양의 화려한 옷을입혀 놓았다.

文明의 아레르기.

文明病에 오염된 현대인은 전부 문명아레르기 환자들이다.

深山幽谷을 꿰뚫고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도시의 중심번화가에자